



# 국내활동 외국인 불교학자들 “한국불교에 반했어요”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발맞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불교학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들중 프랑크 테데스코(미국·세종대 교수·53), 베르나르드 세네칼(프랑스·예수회 신부·46), 티호크 블라디미르(러시아·경희대 교수·30), 에드워드 클라멘(호주·중앙대 교수·56), 울만(스위스·32) 등은 연구활동도 두드러질 뿐 아니라 참선수행에도 관심을 갖는 등 한국불교에 강한 애정을 보이고 있다. 또 이들은 한국불교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선봉장의 역할도 자처하고 나서서 주목된다.

외국인 불교학자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사람은 바로 테데스코 교수. 불교학 관련 국제세미나가 열리는 곳엔 어김없이 나타나는 자칭 마당발 테데스코 교수는 불교 문화연구원, 불교환경교육원,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 등 국내 문화·학술단체와의 인연이 깊다. 그는 현재 ‘불교의 생명윤리’를 주제로 동국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최근 ‘한국불교와 생명윤리-다종교 사회에서 자비행과 낙태문제’라는 제목의 학위논문은 마무리했는데, 생명윤리에 대한 그의 관심이 매우 커 런던대 데이비드 키온 교수의 최근 저서 <불교와 낙태>

에서 ‘한국의 낙태문제’라는 주제의 한 장(章)을 집필했을 정도. 세네칼 신부는 <육조단경>을 토대로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와 보조선님의 돈오점수 사상의 차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유네스코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코리아 저널>에 “한국불교학계는 호교(護敎)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세네칼 신부는 1993년 구산스님의 <석사자> 번역과 주석으로 파리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며 한국불교와 연을 맺었다. “불교적 깨달음을 기독교에 적용해보고, 두 종교의 간극을 좁혀보고 싶다”는 세네칼 신부는 한국불교 선교회에서 매일 2시간씩 선 수행

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때는 특이하게 자신이 기독교 교리를 기초해 만든 화두를 든다. 지난해 보조사상연구원이 개최한 학술회에서 ‘의천의 한국불교사 의식’을 발표한 블라디미르 교수도 한국불교 연구 열기가 뜨겁다. 모스크바에서 박사학위 논문 ‘대가사의 외교사’를 쓰면서 한국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그는 <삼국유사> <대승기신론> 등을 러시아어로 번역하고 있다. 현재 3월에 나오는 <미하일 박

## “머튼신부를 선승이라 한 까닭”

‘...불교와 문화’ 겨울호, 토마스머튼사상 다뤄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 1915~1968)은 훌륭한 가톨릭 신부이면서 세상 사람들의 문제와 아픔을 바로 자신의 것으로 여겼던 선사 그 자체였다.” 불교문화·학술계간지 <불교와 문화>(불교진흥원) 겨울호는 토마스 머튼신부의 생애와 사상을 특별기획으로 다루고 이 같이 조명했다. 토마스 머튼은 가톨릭 신부로서 영적 지혜를 추구하며 선불교를 정열적으로 탐구해 종교·종교간의 상호 이해와 평화와 추구를 위한 미국의 대표적인 사상가. 강건기교수(전북대 철학과)는 “머튼은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는 ‘참나’ 자체를 인간으로 보았다”며 “머튼의 ‘참나’ 찾기는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찾고 회복해가는 선의 전통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머튼의 기도를 수심(修心)과 비교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수철신부(성베네딕도회 요셉수도원)는 “머튼은 초월적인 선(禪)과 같이 모든 구조·규범·믿음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순수한 실재를 체험하고 있었다”며 “그는 관상기도를 통해 깨달음의 최고 경지인 절대적 공(空)을 체험했다”고 말했다.

## ■ ‘조선불교혁신 회의록’ 발견

### 해방직후 제주불교 흐름 ‘한눈에’

제주도 불교혁신 소속 스님들의 구체적인 활동이 기록된 ‘불교혁신 전도 승려대회 회의록’이 최근 제주도 본문사(주지 광파스님)에서 발견됐다. 이번이 발견된 회의록은 1945년 12월2~3일 양일간 제주 대각사 대웅전에서 개최된 승려대회에 83명의 제주도내 각 사암 스님과 재가 불자대표가 동참해 불교혁신 방안을 의결한 내용이 들어있다. 회의록에 기록된 혁신승려대회 주요안

건은 건국정신진작·사회정화·의식개혁·승려품위향상·대중불교실현·교과자원확립·불교강원설립·인재양성·모범총림창설·포교기관지배행 등이다. 이 회의록은 제주불교계 포교지인 <법계>의 창간준비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표지에는 태극기 문양을 그려넣어 애국심도 고취시키고 있어 일제시대의 제주불교사를 연구하는데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동국대 불교관련 울 석·박사논문 28편

동국대학교 일반·교육·불교·문화예술대학원의 97학년도 석·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박사 8명 석사 20명이다. 학위수여식은 2월16일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총8편)

▲불교학과=‘금강삼매경론’ 관행연구(원명스님), ‘용수의 화엄사상연구’(박상수), ‘사명지예의 정토관 연구’(김은희), ‘심왕과 심소설의 변천상에서 본 이장 연구’(정준기), ‘민아원각 교학 연구’(고영성) ▲사학과=‘무학자초 연구’(황인규), ‘나옹혜근의 선사상 연구’(김창숙) ▲미술사학과=‘조선 전반기 불경판화의 연구’(박도화) 석사학위 논문(총20편)

▲불교학과=‘육조시대 신밀·신불밀 논쟁 연구’(김영진), ‘현수 법장의 공사상 연구’(지희숙), ‘금강경’ 한역에 대한 고찰’(이건준), ‘금강계 만다라 연구’(구자현), ‘경덕전통의 전통설 연구’(김기열) ▲인도철학과=‘푸쉬야미트라 파발의 역사적 의의’(김영호), ‘디고나가의 아포론 연구’(정윤경), ‘유가행랑의 사비타비파사나 연구’(임성목), ‘원효의 열반관과 불성관에 대한 연구’(울만) ▲사학과=‘운주사 창건과 배경에 관한 고찰’(강현정) ▲불교사회복지학과=‘불교인의 사회복지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및 연구’(해경스님), ‘불교자원봉사자의 활성화 방안 연구’(강현순), ‘청소년복지와 사찰의 역할’(이택권) ▲불교예술문화학과=‘조선 후기 관음보살도 연구’(김수정), ‘19세기 아미타불화 연구’(신주호) ▲유아교육학과=‘불교유치원 교육활동 무대’(김명숙), ‘팔정도과 육바라밀을 중심으로 한 유아 인지 및 정서 프로그램 연구’(정윤희), ‘종교계 유치원 교사의 직무만족도 조사연구’(이성민) ▲미술교육학과=‘한국의 포박화에 대한 고찰’(이영희) ▲종교교육학과=‘한국에 유입된 일본의 신종교 연구’(고봉길)

교수 팔순기념논(중)에 게재할 논문 ‘6~7세기 신라의 불승(佛僧)과 토착신앙’을 다듬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 원광·자장·의상 스님들 신라 고승들과 구전설화(說話)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그는 또 한국·중국·일본의 호국불교를 비교, 주술적 성격까지 규명한 연구서 <신라 종대 호국불교 연구>의 발간도 계획하고 있다.

중앙대 호주학연구소 클라멘교수는 생활에서 참선을 때놓을 수 없는 만큼 독실한 불교신자. 호주 퀸스랜드대학에서 종교학을 공부하고 범어 경전, <우파니샤드>에서 사마디(삼매)의 원형을 찾고 있는 그는 <원광아시아학회지> 1월호에 ‘상좌부불교의 삼매’를 발표한다. “사마디에는 선, 위빠사나, 요가 등 다양한 방법론이 있다”는 클라멘교수는 “해임스님에게서 간화선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동국대에서 인도철학 석사학위를 받은 울만은 학위논문 ‘원효의 열반관과 불성관에 대한 연구’를 한글로 썼을 뿐만 아니라 원효스님의 <열반경중요>를 새롭게 영역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영어·한글·한문·팔리어 등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울만은 불교학자로서의 소양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울만은 “한국에서 가장 경이로운 것은 한국적 선불교 그 자체”라며 “박사학위 주제는 선과 열반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선에 깊은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Location: [http://www.abccongress.org/abcc/abcc.html] What's New | What's Cool | Handbook | Net Search | Net Director | Updates

**American Buddhist Congress**

Mailing address: 933 S. New Hampshire Ave., Los Angeles, California 90006  
Tel: (213) 739-1270, FAX: (213) 386-6643  
email: abcc@wgn.net

The American Buddhist Congress is a national council of Buddhist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 the United States. It is a resource and information center for American Buddhists, including help services and a multi-media library. The Congress is dedicated to promoting Buddhist Document Date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美 불교도평의회**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중국·일본·티베트·베트남·캄보디아 등 다양한 불교계의 화합을 목표로 삼고 있는 단체가 바로 미국불교도평의회(American Buddhist Congress, 이하 평의회).

평의회는 1987년 11월 미국 전역에서 불교의 윤리적 전통과 정미적 불교종파를 대표하는 47개 불교단체 대표자들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관음사(觀音寺)에서 설립됐다. 현재 평의회는 미국 불교인들에게 법도와 불교행사 등을 통괄해 알려주고 다국적 언어로 된 불교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 ‘미국불교도평의회’ 사이트를 개설한 것도 불교인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불교전통에서 유래한 불교인들의 협동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것.

이를 위해 평의회는 ▲불교사찰·단체 주소록 ▲학술회의 년회 개최 등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축적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주소록 편찬 작업’은 미국종교연구소를 개설한 발아 고든 윌슨 박사가 불교 사찰과 단체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1천8백여 개의 사찰과 단체 목록이 수집됐다. 이 사이트를 방문한 불자 네티즌도 전자 우편을 통해 자료 수집을 도울 수 있다. 불자 네티즌이 미국의 불교사찰·단체를 등록하려면 하버드대학의 ‘종교다원론 프로젝트’로 해당 사찰·단체의 프로파일용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또 평의회가 주최한 학술회의 관련 논문·사진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 로스앤젤레스의 관음사에서 ‘불교와 문화의 만남’을 주제로 개최된 학술회의에서는 스리랑카·중국·일본·태국·한국·라오스·티베트·베트남계 불교 등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불교계 대표자들이 참여해 발표했다. 이들 발표 논문들은 ‘텍스트 버전’으로 제공되며 로딩(가져오기)도 가능하다.  
http://www.wgn.net/~abc/abcc.html

## 태국인들 독경·염불로 경제부흥 ‘위안’

사찰 참배객 늘어

지난해 7월부터 불어닥친 경제 위기로 주가와 통화 가치가 매우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태국. 경제적 불안감이 고조되자 극교(嚴敎)인 불교에 의지해 사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가중되는 경제적 불안감으로 불면증, 자폐증, 외기소침, 편두통, 성욕감퇴 등을 겪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태국의 사찰들은 스님들과 함께 염불과 독경을 하거나 명상에 잠긴 20~30대 여피족 등 청·장년 태국인들로 가득차 있다. 방콕 시내 중심가에 있는 사찰에서는 하루종일 절하는 양복입은 태국인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태국 정부가 올해 초 방콕시민 1천1백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17%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해 태국국민의 정신적 건강 상태가 경제만망이나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불교학인모집

불교 최고지도자 양성기관인 「한국승가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아 래 ●

1. 원서교부 및 접수: 1월 5일 ~ 2월 15일까지
2. 모집과정 및 정원: ①전문학부(통신반) 200명 ②연구과정(통신반) 30명
3. 입학자격 전문학부: ①대졸이상의 학력자 ②불교 교양대학 졸업자 ③불교 정법을 알고자 하는자 연구과정: ①승가대학원 졸업자 ②불교관계 박사과정 수료자
4. 교육기간: 전문학부·연구과정·각3년(6학기)
5. 졸업혜택: 각종 자격증이 수여됨

\* 자세한 입학안내서는 편지로 청구하면 보내드립니다.

**UN · NGO · IAEWP · 협동학교**

### 한국승가대학원

(우)701-600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  
☎ (053)952-8711 · 017-501-8711

##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이상),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053)628-9145  
(053)655-3027

### 대구여래한방

앞서가는 불자들의 필독잡지

##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기간 '불교와 문화' 제 4호(통권 24호)

칼라희보1 / 사진으로 보는 성보기행 불교 꽃문양의 세계  
자성대담 / 불교방송 교리강좌 중계 박성배 교수에게 듣는다1 오늘을 사는 불자들의 올바른 신행생활

인터넛불교 / 세계불전 전신회의 현주소 인물포커스 / 불교역사인물재발견 시리즈 요승으로 물린 개척자, 신돈  
자성대담 / 신라불교계의 거목, 원효와 의상의 화엄관  
세계의 불교 / 1 영혼의 땅, 티베트 2 두 편의 영화로 이룬 불교의 미국화(?)  
발굴 / 홍인교 거사의 열불왕생법 상본 스님의 禪 이야기  
禪의 풍토 / 불교관계는 총합적인 불교계 주요행사일지

특집기행 / 세계의 사상가 동서 사상의 가교자, 禪僧 토마스 머튼  
불교계 진단 / 사리신앙의 문제점과 대책 잘못된 사리신앙 행태 달라져야 한다  
'97 청정운동 동참기 포커스 / 종교대원시대 특정 개인종교의 문제  
칼라희보2 / 한국의 불교 禪 사인들의 삶을 해학으로 승화시킨 장승의 미학  
생태탐사기 백두산의 식물 생태, 울릉도의 자연과 문화

구독신청 및 문의  
\* 전화 02-719-1855, 전송 02-719-5052  
\* 직접 은행에 입금하시면 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승려계좌: 국민은행 827-25-0006-047 외환은행 189-13-02685-0  
우체국 012245-000496-11'는 월 069-01-197161  
저로번호 7630865 예금주: (재) 대한불교진흥원

특집 / 문화사대주의를 진단한다  
우리의 모국은 어디인가, 표절과 문화사대주의, 문화사대주의 극복을 위한 현실적 방안

불교와 문화 정기구독 신청 Tel 02-719-2606, Fax 02-719-5052